

쿠크리칼과 냉이



지연옥 위원
서울제2중재부
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

지난 연말에 택배가 하나 왔다. 사과 상자보다 큰 박스 안에는 냉이와 달래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. 땅이 쫄쫄 언 겨울에 캐기도 힘들었을 산나물을 짹짹 눌러 담아 보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. 공직에 재직 중일 때도 주말이면 산과 강을 찾아 송이랑 산나물을 따거나 낚시를 즐기던 그 친구는 퇴직하고 나서는 아예 강원도 화천 파로호 뒤흘 골짜기에 터를 잡고 유유자적 자연과 살고 있다.

물에 씻어낸듯한 냉이 이파리들은 싱싱했고, 굵고 긴 뿌리는 마치 장뇌삼 같았다. 가냘픈 달래 또한 즐기 하나 다친 게 없었다. 추운 겨울에 그걸 캐느라 고생했을 그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. “이 많은 걸 소비하려면 내가 길가 좌판이라도 해야겠어.” 핸드폰 속 내 감사의 말에 그 친구는 넋지시 말했다. “캐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, 흙 털어내려고 찬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게 힘들었다는 것만 알아주라. 물론 그것도 쿠크리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.”

그 며칠 전, 간암으로 세상을 등진 다른 동창의 빈소에서 이 친구를 만났다.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기도 좀 바꿀 겸 내가 물었다. “쿠크리칼은 잘 쓰고 있니?”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버섯도 따고, 나뭇가지도 자르고, 잡풀도 베고 하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. 그 쿠크리칼은 10년 전에 내가 네팔 여행에서 사다 준 거였다. 그 칼이 산사나이에겐 꼭 필요한 도구라며 한 자루만 사다 달라는 그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는데, 그때 내가 사 온 쿠크리 두 자루를 그에게 다 건네주면서 하지 못했던 뒷얘기를 그날 나는 장례식장에서 털어놓았다.

그 칼이 그리도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것을 내가 안 것은 카트만두 시내 타멜 관광지구에 있는 쿠크리 전문점에서였다. 상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크고 작은 황금색 칼들에게 압도되었다. 약간 타원형으로 흰 청동 칼날과 갈색 나무 손잡이가 멋진 조화를 이룬 수많은 쿠크리들이 벽에 달린 작은 선반 위에서 그 도도한 자태들을 뽐내고 있었다. 칼이 아니라 예술품인 저 쿠크리가 설마 구르카 용병들의 무기였을까 싶었다.

다양한 크기 중에서 나는 칼날과 손잡이까지 길이 35cm 정도 되고, 디자인만 좀 다른 것으로 두 자루를 샀다. 한 자루는 그 황홀함에 넋을 잃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으로 칼날에 용트림하는 용이 새겨진 아주 멋진 것이었다. 값은 우리 돈으로 개 당 약 3만원. 그러나 10년 전 당시 네팔의 대학교수 월급이 5만원이었으니 대단한 고가품이 아닐 수 없었다.

그런 설렘으로 사들고 온 쿠크리였건만, 문제는 인천공항에서 터졌다. 짐을 찾기도 전에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내 이름 때문에 나는 사무실로 달려가야 했다. 길이가 20cm 이상인 칼은 무기로 분류되어 반입 금지 품목이란 게 직원의 설명이었다.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압수한다는 통보였다. 분통터졌다.

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. ○○라고 하는 나이프 수입업체에 교통비를 주고 부탁하면 수입허가증을 들고 가서 찾아다 준다는 거였다. 역시 신속하게 고스란히 잘 찾아온 수입업체는 그러나, 교통비 외에 세금, 허가증 사용비 등 개당 22만원, 즉 44만원을 내게 청구했다.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4만원을 깎아 내 칼을 다시 40만원 주고 사야 했다. 나중에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내가 사 온 것과 같은 것이 개 당 3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. 내가 그런 사실을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교통비만 지불한 줄 알고 두 자루를 다 달라고 내게 애원하다시피 했던 것이다.

그래, 어차피 선물하기로 한 건데 필요한 사람이 갖는 게 맞지 하며 나는 선뜻 두 자루를 다 건네주었다. 그때 네팔 트레킹은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산악인 박영석의 매니저를 따라 간 거였는데, 앞으로 자주 가지는 약속을 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단호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.

그런 사실을 다 전해 듣고 난감해 하며 파로호로 돌아간 그 친구가 일주일 후에 냉이 한 상자로 그 마음을 전해 온 것이다. 나는 좋은 연말 선물이다 싶어서 한 움큼씩 비닐봉투에 담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뜯금없는 냉이 달래 잔치를 벌였다. 싱싱하고 향 좋고 맛 좋고 귀한, 이제껏 먹은 냉이된장국 중 최고였다는 지인들의 인사를 들으며 생각했다. 그 친구에게 다른 종류의 쿠크리를 더 사다 주어야겠다고. 물론 네팔은 아직도 다시 가지 못하고 있지만….